

2011년 제 2회 FIF 무선 WG 월례회의

일시: 2011년 8월 19일(금) 16시 - 19시

장소: 용산역 KTX 회의실 (글로리 IV)

참석자: 강상용(대영), 조수현(KT), 고영배(아주대), 권경인(LG-Ericsson), 김성륜(연세대), 김영용(연세대), 김재현(아주대), 류탁기(SKT), 모정훈(연세대), 박경준(DGIST, 간사), 박문화(성신여대), 이장원(연세대), 이종식(KT), 이준구(카이스트), 이향원(카이스트), 이혁준(광운대), 정방철(경상대), 정송(카이스트), 주성순(ETRI), 홍충선(경희대), 김미영(FIF, 배석)

안건:

0. 참석 멤버 소개 - 성함, 소속, 연구분야

1. 주제발표

1-1. 16:20-17:30 Dynamic Spectrum Access: Bottlenecks & Opportunities (연세대 김성륜 교수)

김성륜 교수님께서 스웨덴 왕립공대에 연구년을 다녀오시면서 dynamic spectrum management 관련 project을 유럽에서 launch하셨기 때문에 관련 진행상황을 듣고자 모셨음

Secondary use of spectrum: scenarios and their busienss viability (발표제목, 공지제목과 조금 차이 있음)

항공산업과 무선통신산업의 비교 - 유사점이 많음

항공산업에서는 30년전부터 이미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

발표중 주요 토의 내용

정송교수님 질문: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주파수 부족현상이 과연 해결이 되는 것인가? 비즈니스를 자꾸 만들어내면 결국 주파수가 계속 부족한 것 아닌가?

답변 및 토론: 주파수의 사업적 접근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

이준구 교수님 질문: cellular band를 cognitive radio band로 사용이 정말 가능한가?

답변: 가능하다고 생각

고영배 교수님 질문: ISM bands와 Cellular bands는 CR의 관점에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? ISM bands에서는 primary와 secondary가 없는 것 아닌가?

답변: primary와 secondary를 명확히 해야 한다. 많은 논문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.

최영준 교수님: 비상용 주파수 등 별로 사용안되는 주파수의 경우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용가능하지 않나?

고영배 교수님: 실제 비상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. secondary가 과연 제대로 back off 할 수 있겠는가?

1-2. 17:30-19:00 모바일데이터 폭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R&D 대책 (지경부 이현우 PD)

향후 10년(2020년까지) 약 500배로 mobile data traffic이 증가하리라 예상함.

발표중 주요토의 내용

ICT가 소모하는 전력에 대해서 수천분의 일 수준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예측된다. 과연 reasonable한 수치인가?

이준구 교수님: 벨랩의 이야기로는 실제 목표는 제안된 목표의 1/10 수준이다.

권경인 상무님: 현재 인터스트리에서 green technology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중임

정송교수님: Green Technology가 우리가 앞으로 10년, 20년 동안 매달려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분야인가?

Giga Korea Plan (2012 - 2019), 총 1.4조원

강상용 소장님: 과연 네트워크 장비에 4천억원 이상 투입하여 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는가? 국내 장비 산업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?

답변: 향후 5년 내에 세계 50조 시장중 최소 10프로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고민중이다.

2. 토의 및 향후 계획

향후 WiKi 관리는 이향원 교수님이 담당